

4.19를 돌아보며

황 건

사설혁명연구소 감사



60년 4월혁명은 민중이 독재자를 타도한 우리 역사상 초유의 폭거였다. 4월 혁명으로 비로소 민중을 억압하고 우롱하는 독재정권은 기필코 타도되고 만다는 민중 승리의 소중한 "신화"가 창조된 것이다. 이 신화는 우리 현대사에 망령처럼 드리워져 지금도 독재를 그리워하는 수구세력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그리고 민중에게는 변함없는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다.

그러나 4월혁명은 그 동안 역대 독재정권 밑에서 양산된 기득권 세력과 4.19를 팔아 이에 편승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줄곧 패하고 술한 오욕을 겪어 왔다.

이들은 4월혁명이 갖는 민족민주적 의미를 애써 부인하고, 기껏해야 4.19를 단순히 무정선거에 대항한 학생 중심의 소시민적 항의운동으로 각하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14세의 어린 나이에 4월 혁명에 참가하여 산화한 한 여중생이 남긴 글이 4.19의 의미를 용변적으로 말해 준다. 이 글에는 당시 데모에 나섰던 일반 학생들과 대중의 의식 구조, 사회 분위기가 어린 여학생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여과 없이 반영되어 있다. 당시 한성여중 2학년 학생이었던 진영숙 양은 친구들과 데모에 참가하러 가기로 의논하고 황급히 집에 들러 마침 출타 중이었던 아버

4월혁명은 친일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승만 매국정권의
민중 억압과 착취·수탈 구조, 냉전과 분단구조에 대항한 민중의 총체적 항거였다.
이 때문에 4월혁명은 우리 현대사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민주운동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니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어머니! 테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테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 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린 진영숙 양은 총격전이 벌어진 미아리 외곽에서 총탄을 맞고 산화했다. 진영숙 양은 철없는 마음에 단순히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다가 우연히 사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와 민족을 위해 …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나갔던 것이며, 그러한 자신의 결행을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줄 것을 어머니에게 부탁드리고 있다. 진영숙 양은 어린 나이에도 이승만 정권의 본질과 자신의 결행이 갖는 의미를 깨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4월혁명은 친일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승만 매국정권의 민중 억압과 착취·수탈 구조, 냉전과 분단구조에 대항한 민중의 총체적 항거였다. 이 때문에 4월혁명은 우리 현대사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민주운동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의에 죽고 참에 살자"

4.19 당시에 등장했던 여러 구호들 중에서도 서울의 어느 대학이 플래 카드로 내걸었던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구호는 지금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금 우리에게 과연 "의"는 무엇이고 "참"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식은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여건의 잡다한 역학관계에 매몰되어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의"와 "참"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현실 여건에 수반되는 자신의 이해 관계와 타성을 탈피하는 자기극복을 통해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닐까?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인식과 결단이 요구된다.

4.19는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가 한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도화선이었을 뿐 뿐이라는 정권의 반민주 반민족적 본질에 있었다. 진영숙 양은 3.15 부정선거에 따른 현실 정치의 논리와 자신의 현실 신분에 매몰되지 않았기에 철없는 나이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통찰하고 자신의 결행이 갖는 의미를 직시하여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IMF 사태

4.19 이후 지금까지 민민운동은 크게 발전했고, 현실 여건과 사람들의 의식구조도 많이 달라졌다.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노동운동에 새 지평이 열렸고, 경제 파탄을 불러온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50년만에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4월의 광장에 섰던 청년들의 상당수가 육순의 나이를 넘어서는 금년에 4월혁명 38돌을 IMF 사태 하에서 맞이하게 되니 참담한 생각과 함께 진영숙 양을 비롯한 4월의 영령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앞선다.

IMF 위기로 인해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큰 시련에 봉착하고 있

4월혁명은 우리 현대사에 망령처럼 드리워져
지금도 독재를 그리워하는 수구세력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그리고 민중에게는 변함없는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다.

다. 현 사태는 특히 노동운동에 혐난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하루하루 간신히 국가 부도 사태를 모면해 가는 가운데 앞으로 이 삼백만의 실업자가 예견되고 있고, 더구나 설사 당국의 말대로 앞으로 외 자가 도입되고 수출이 늘어나 이삼년 뒤에 경제가 "회생"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은 외국자본의 지배 강화와 중소기업과 영세농의 도태, 그리고 대량 실업의 구조화로 경제의 대외 예속과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민족 경제의 와해로 귀결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노동운동은 혐난할 수밖에 없다.

IMF 위기를 혹자는 "제2의 국치"라고도 하고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IMF 사태에 대한 작금의 대응은 국치와 국난에 대한 대응치고는 너무 안일하고 기능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의 외환부족을 모면하기 위해 경제를 무차별적으로 외국 자본에 개방하는 등으로는 위기를 더욱 구조화하고 심화시킬 뿐이다. 이같은 기능주의적 사고와 대응으로는 국치도 국난도 극복할 수 없다.

위기는 도약의 계기를 내포한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여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우선 현 사태가 위기임을 인식하고 그 본질과 의미를 옳게 파악하는 바탕 위에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IMF 사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세계화의 뜻'을 올바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민족경제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대응은 올바른 인식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이 4.19가 우리에게 주는 "의"와 "참"의 교훈이다.

4월혁명 38돌을 맞이하여 4.19 묘지에 누워 계신 252분의 4월 영령들을 생각하면서 4.19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